

單発音読クリニック パワ中14 母への手紙

보고 싶은 어머니께

올해는 제가 없어서 혼자서 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?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맛있는 김치 보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제가 늘 건강한 것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치를 매일 먹어서인가 봐요. 항상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할게요.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. 감기 조심하세요.

도쿄에서 진희 드림.